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성명서		
	보도일시	2018. 11. 23. 금.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11. 23.	총 2매 (별첨 0건)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성명 강사 노동권 무너지면, 아이들 교육권도 무너진다!

- ▲ 한국잡월드 직업체험 강사가 비정규직? 아이들에게 노동의 고귀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나?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매년 재계약, 노동부가 사죄하라!
- ▲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취업전쟁·입시전쟁에 고통 받을 것
- ▲ 한국잡월드 사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할 것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이며 진로정보교육 제공 기관이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올바른 노동관을 가르쳐야 할 국가기관이다. 그런 한국잡월드가 2012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직업체험 강사를 매년 재계약하는 꿈을 부려왔다는 것이 기가 막히다. 대체 고용노동부는 뭐하는 곳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산하기관 꿈수 채용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게 나라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동부가 이 모양이니 나라 전체가 비정규직 공화국이 될 수밖에,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나라에서 우리 아이는 소박하나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을까? 내 아이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입시전쟁, 취업전쟁, 공시전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하나? 아이들은 장래희망으로 건물주를 써 내고 노동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회, 정치하는엄마들은 변화를 외칠 수 밖에 없다.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잡월드는 우리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꿈을 키울 계기를 주는 곳이다. 한국잡월드가 사기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유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꿈꿀 기회와 동기를 주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요구한다.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노동도 마땅한 근거가 없이 차별받거나 천시 받지 않아야 한다.

한국잡월드는 지금까지 직원 390여명 중 338명 일 년 단위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직업체험을 시키는 강사들이다. 7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일년마다 해고되고 다시 고용계약서를 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하게 일해왔고, 이제 다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잡월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로 가야하는 체험강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2012년 개관 이후 매일 3천여 명이 방문해 누적방문객이 520만 명에 달한다고 잡월드는 선전한다. 그 520만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성명이 나가는 바로 오늘도 우리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의 자녀가 잡월드로 직업체험을 갔을만큼, 이 사안은 아이 키우는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사안이다.

파업 장기화 중인 잡월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리가 없고 지금은 전문강사가 아닌 대체근로자가 견학 온 아이들 앞에서 써진 시나리오를 보고 읽으며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 비정규직이에요? 저는 나중에 게임회사 가고 싶은데 저도 비정규직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물 곳곳에 붙은 선전물을 보고 한국잡월드에서 직업체험을 하러간 아이가 체험강사에게 물었다는 말이다. 오늘 체험활동을 다녀온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엄마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래요. 나도 커서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국잡월드 사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다. 오늘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고, 내일의 노동권이 달린 문제다. 직업체험 강사들에게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만 아이들도 행복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을 쓰고 버리고 노동자가 한낱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한 나라에서 어느 아이가 나홀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랴? 엄마들은 한국잡월드 노동자들과 뜻을 함께하고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